잉글랜드에 불교커뮤니티센터 들어선다

"잉글랜드 남부의 도시 올더숏(Aldershot)에 대규모 불교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고 햄프셔(HAMPSHIRE)지가 6월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선불교커뮤니티센터(이하 BCCUK)가 2011년 당시 시설 노후로 사용되지 않던 공공체육시설인 로시무어 보로(Rushmoor Borough) 자치구 부설 스포츠센터(BT Social Club)를 매입하고, 불교사원 개원을 천명한 지 3년 만의 결실이다.

"스포츠센터 매입금만 50만 파운드(약 9억)가 들어갔을 정도로, BCCUK의 총력을 쏟았던 프로젝트"라고 전제한 다마르 겔(Damar Chale · BCCUK) 대표는 "부동산 매입 이후 불교사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로시무어 보로 자치구 위원회를 설득하고 지역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오는 6월 중순 경 '불교사원'이 아닌 '불교커뮤니티센터'로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BCCUK 측은 '허가'를 받는 데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200여 명이 동시에 법회 봉행하거나 명상을 수련할 수 있는 대규모 홀이 조성되고, 대불도 봉안된다. 또한 불교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스님들과 대중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고 전제한 다마르 겔 대표는 "신앙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제공, 불교커뮤니티센터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안을 자치구 위원회와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스포츠센터 인근 올더숏 공원의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논의 역시 로시무어 보로 자치구 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남부 올더숏 시에 들어서는 불교커뮤니티센터 전경.

"햄프셔 지역 불교 포교, 사회 공익 나설 것"

다르마 겔 대표 9억투입 3년 결실 … 2011년 부지 매입 완료

"스포츠센터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종교단체에서 임대나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던 곳일 정도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고 밝힌 존 손(John Thorne) 자치구 위원회 개발분과장은 "불교커뮤니티센터가 지역 개발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 주목, 리모델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 위원회는 현지의 관심과 새롭게 들어설 건물의 사회적 공헌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지적한 존 손 분과장은 "위원회가 '사원'이 아닌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 "불교커뮤니티센터가 제시한 운영 방침과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자치구의 공익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무어 보로 자치구의 불교도 수는 지난해 달라이 라마 방문 이후 처음 실시된 인구센서스(2012년 12월)에서 2001년 대비 1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동년 대비 4%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가파른 성장세이다.

햄프셔 지는 '2012년 인구조사'를 인용, "영국, 잉글랜드 등에서 불교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불교도 수는 2001년 144,453명에서 2012년 174,000명으로 늘었다. 잉글랜드 경우 152,000명(2012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버지니아주, 제4회 불교페스티벌 개최

6월 20일~23일, 로버트 서먼 명예교수 기조강연

미국 버지니아주 로슬린에서 올해로 네 번째 불교 페스티벌이 열린다. PRNewsire지 5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불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혜과 자비'를 주제로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 콜롬비아대 종교학 명예교수) 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제 4회 불교 페스티벌은 △합동 명상 △영화 상영(6편) △초청 강연(9회) △불교음악 공연(3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티벳캠페인과 티벳연합의 도움을 받아 6월 22일을 '티벳의 날'로 정하고, 티벳의 현안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 등 관련 특별 전시회와 공연도 마련되며, '달라이 라마에게 보낼 생일 카드 만들기' 등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25명의 미국인'으로 선정된 서먼 명예교수는 "올해 불교 페스티벌에는 불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톨텍(Toltec), 유니테리언(Unitarian), 랍비(Labbi), 구루(Guru)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 연사로 나와 종교 다원성을 가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앞선 불교 페스티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불교페스티벌(BuddhaFest) 포스터.

PRNewsire지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톨텍의 지혜'를 주제로 한 〈The Toltec Path of Transformation〉의 저자 히터 아마라의 강연, 인도의 떠오르는 요기 리시케시(Rishikesh)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종교, 그 원시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유니테리언 성직자인 마린 스웰(Marilyn Sewell)의 강연 등이 로슬린과 인근 워싱턴DC 등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가이 피어스, "불교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

아이언맨3 주연, 연예매체서 불교 언급

얼마 전 국내에서 개봉돼 9백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관람객 수를 낳은 영화 '아이언맨3'. 아이언맨의 적수, 유전공학자 올드리치 킬리언 역할을 맡은 가이 피어스(44)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화제다. 뉴질랜드 스터프(Stuff)지와 4월 24일(현지시각)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2년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영화를 찍었어요. 저한텐 휴식이 필요했고 고향 호주로 돌아가 쉴 필요가 있었죠. 그 때 티베트 불교 서적을 읽으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리화나를 끊는 등 제 삶을 바꾸는 결정도 하게 됐죠."

헐리웃에서도 개성있는 연기로 입지를 굳힌 그는 악역도 매력적인 역할로 승화시키는 '내공있는' 배우로 통한다. 때문에 가이 피어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수많은 팬을 끌어들이는 건 물론이다.

스스로를 독실한 불교도라 칭하지는 않지만, 그는 불교가 자신의 삶에 던지는 교훈을 항상 생각한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일상적인 일을 관하는 법은 물론 불교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태도 또한 갖추게 됐다.

역대 외화 흥행 2위를 기록한 '아이언맨3'에서 주연을 맡은 가이 피어스. 불교와의 만남에서 진정한 자아의 휴식을 발견했다고 얘기한다.

가이 피어스는 1986년 TV시리즈로 데뷔한 이래 'LA 컨피덴셜' '메멘토' '킹스 스피치' 등에 출연하며 굵직한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영화 '메멘토' 촬영 당시 채식식단으로 몸무게를 감량하기도 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틱낫한, 美 도시에 청동상 세워져

캘리포니아 주, 테레사 수녀 · 간디 등 25 영웅상 조성

미국의 한 도시에 틱낫한 스님의 조각상이 세워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시가 그 무대. 세계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 25명을 기리고자 조성한 기념물이다. 마틴 루터 킹을 비롯 마더 테레사, 간디, 넬슨 만델라 등이 포함됐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전 당시, 난민 구조와 반전운동에 힘쓰면서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해왔다.

5월 31일 헨리 카이저 공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조각상은 높이 7미터, 넓이 15미터에 이른다. 제작 기간만 십 수년, 사용된 청동은 27톤이 넘는다.

이렇게 대규모로 조각상을 조성한 데는 9.11 테러가 크게 작용했다. 분열된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헌신한 이들의 숭고함을 되살리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였던 것. 작품 제목도 "그들을 기억하다: 인류애의 영웅들(Remember them: Champions of humanity)"이다.

작업을 지휘한 조각가 마리오 치오도(Mario Chiodo)씨는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한 인류애와 동질성을 표현하는 데 그들만큼 좋은 모델이 없다"고 말했다.

작품은 인물의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해 냈다는 반응이다. 틱낫한 스님은 합장한 모습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스님의 얼굴에서 평화와 불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온 틱낫한 스님의 말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위해 살아온 이들의 정신과 만나는 곳. 헨리 카이저 공원은 이제 치유의 장소로 거듭나게 됐다.

배현진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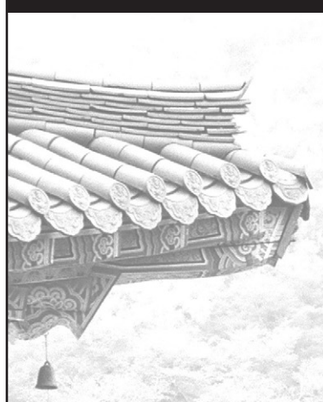
미국 오클랜드시가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25명의 위인을 청동상으로 만들었다. 틱낫한 스님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

5만 달러 최고가 불서 등장 '화제'

싱가포르 센텍시티국제컨벤션(Suntec City International Convention)에서 열린 '2013 도서 박람회(Book Fair 2013, 6월 5~10일)에서 최고가의 불서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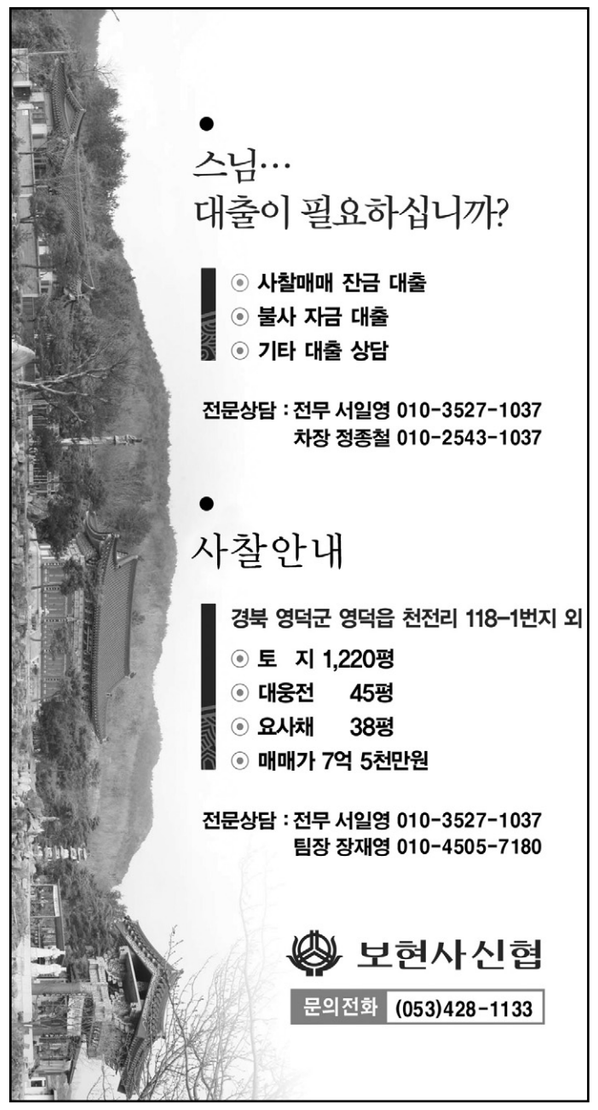
'2013 도서 박람회'에서 주목받은 불서는 중국의 사경 작가 씨아 징샨(Xia Jingshan)의 사경 시리즈 'Fuo Xiang Dian Zang(Collection Of Buddhas)'을 엮은 도서로, 50,000달러(약 5,600만원)로 책정 • 전시되어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SATRDAY 지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작가 싸아가 3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사경하고 채색 삽화로 장엄해 만든 화첩을 엮은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작 법 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대상 :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문 의 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토 지 1,220평
대웅전 45평
요사채 38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